

# 호주의 농업·농정 개관<sup>1)</sup> -200년의 전개-

허 덕\*, 박지원\*\*, 김태련\*\*\*

## 1. 정착 200여년의 발전

호주 농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곡물 생산이나 소·양 방목 등을 영위하여 경쟁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인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농축생산이 시작된 것은 200여 년 전의 일이다. 단기간에 농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관련된 정책도 변화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호주의 농업과 농정의 변천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 2. 정착부터 1900년까지

영국에서 최초로 정착선단이 현재의 시드니 부근에 도착한 것은 1788년의 일이다<sup>2)</sup>. 도착 즉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여 개간을 진행시켰지만, 새

1) 이 부분은 玉井 哲也, ‘오스트라리아의 농업·농정—200년의 전개—’,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19.5([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531\\_pr89\\_04.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531_pr89_04.pdf))의 내용을 번역, 수정 및 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국제곡물관측 담당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2)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모험가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하자 연안 탐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네덜란드'라는 뜻의 뉴홀랜드(New Holland)로 명명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들에게 발견될 당시 약 100만 명의 애버리진(원주민)과 300여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서 적어도 250개의 언어 및 700여개의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네덜란드인의 탐험 활동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는데, 경비가 가중되고 이익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1699년 영국의 해적 윌리엄 댄피어가 뉴홀랜드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보고는 비관적인 것이어서 탐험 열기는 냉각되었다. 루이스 바에스 데 토레스 등의 탐험가가 그 일부를 바라본 데에 그치기도 하였다. 1769년 제임스 쿡에 의해서 타히티, 뉴질랜드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동해안의 탐험이 실시되어, 그곳의 일대를 '국왕의 이름과 국왕의 깃발 아래' 점령하고, 뉴사우스웨일스(영국 웨일스에서 연유)라고 명명했다. 쿡은 그 보고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 개발에 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때부터 이 땅이 하나의 대륙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뉴사우스웨일스는 얼마 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남쪽 대륙인 테라 아우스트랄리스에서 유래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영국의 죄수 폭증과 미국 독립 전쟁(1776년)으로 인해 영국은 뉴사우스

로운 기후·토양 하에서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1820년까지는 식량을 자급할 수 없었다.

그 후에도 밀 등 곡물 생산은 부진하였다. 노동력이 적고 외부의 원격 시장에서 오는 수송비가 비쌌기 때문에 자급을 넘어 생산을 확대하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방목에 의한 목축 특히 양(羊) 방목이 발전하였다. 양 방목은 적은 노동력으로도 가능하였으며, 양모가 높은 단가로 팔렸기 때문에 원격 시장으로 수출하여도 이익이 나온 것이다. 산업혁명기<sup>3)</sup>에는 영국

---

웨일즈 주에 새로운 유배 식민지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이 이끈 11척의 배에 1,500명의 인원이 탑승한 첫 함대가 시드니 항구에 도착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의 건설을 시작하였다. 식량의 자급 태세를 갖추는 일이 당초의 급선무였으나, 미지의 풍토에서 농업 경험자가 적었던 관계로 개발은 진척되지 않았다. 마지막 죄수 호송인 1868년까지 약 16만 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호송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79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자유 정착민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3) 산업혁명기에 교통수단의 발전은 세 가지 국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1국면은 도로의 개량이었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새로운 도로포장법이 개발되면서 도로의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 새롭게 건설된 도로는 유료도로(turnpike)의 형태를 띠었다. 교구(敎區)가 도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대신해 지주, 상인, 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트러스트(trust)가 도로를 상업적으로 운영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30마일 정도로 짧았지만, 많은 도로가 연결돼 전국적인 연결망이 형성됐다. 영국의 도로망은 1750년에 3,400마일에 불과했지만, 1770년의 1만 5,000마일을 거쳐 1836년에는 2만 2,000마일로 증가했다. 교통수단 발전의 제2국면은 운하의 건설이었다. 영국은 하천의 폭이 좁고 길이가 길며 수량도 풍부했기 때문에 운하의 건설과 활용에 양호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운하 건설은 1760년대부터 1790년대까지 열광적으로 추진됐으며, 18세기 말 영국에서 운하가 가능한 수로는 2,000마일에 이르렀다. 운하 건설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됐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적극 활용됐다. 또한 도수관(導水管)이나 지하 터널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많은 기술자들이 운하 건설에 참여했다. 운하 건설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기술자는 브린들리(James Brindley, 1716~1772)였다. 그의 기술적 지도를 바탕으로 위슬리-맨체스터 운하, 맨체스터-리버풀 운하, 대간선 운하(Grand Trunk Canal) 등이 건설됐다. 교통수단 발전의 제3국면은 철도의 건설이었다. 처음에 철도는 탄광 내부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광산 지역과 공업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8세기 후반부터 많은 기술자들은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레일과 차륜의 마찰로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와트의 조수였던 머독(William Murdoch, 1754~1839)은 1784년에 증기기관차의 모형을 만들었고 콘월 지방의 광산 기술자였던 트레비딕(Richard Trevithick, 1771~1833)은 1804년에 시속 4마일의 증기기관차를 제작했다. 증기기관차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티븐슨(George Stephenson, 1781~1848)은 1814년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속 12마일의 증기기관차를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장거리 철도에 해당하는 리버풀-맨체스터 철도는 1830년에 개통됐는데 스티븐슨의 로켓(Rocket) 호가 시속 14마일로 달림으로써 철도에 대한 붐을 일으켰다. 19세기 후반은 '철도 건설의 위대한 시대'로 불린다. 1840년대 이후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철도를 건설했던 것이다. 1840년과 1914년의 철도망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410킬로미터에서 3만 7,400킬로미터로, 독일은 469킬로미터에서 6만 1,749킬로미터로, 영국은 2,390킬로미터에서 3만 2,623킬로미터로, 미국은 4,510킬로미터에서 41만 475킬로미터로 증가했다. 자연적 조건에 제약받지 않았던 철도는 점차적으로 마차와 운하를 대체함으로써 지배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철도의 발달을 계기로 국내 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지방경제는 국민경제의 차원으로 승화됐다. 철도 건설은 금속, 연료, 기계 등을 대량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 부문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았다. 또한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으며 철도를 매개로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대기업이 형성됐다. 이러한 점에서 철도 산업은 '경영혁명(managerial revolution)'의 효시로 불리기도 한다. 철도 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 간 통합이 활발히 전개됐고 대기업이 지배하는 체제가 정립됨에 따라 독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법안도 제정됐다.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준화 작업이 전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1883년 11월 18일에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표준 시각을 정했고, 1886년부터는 철도 궤간의 크기가 모두 4피트 8.5인치로 통일했다. 산업혁명은 기술의 역사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개별적인 기술혁신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산업혁명을 계기로 개별

의 섬유산업이 섬유의 원료가 되는 양모를 대량으로 수입한 적도 있다. 1820년대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서는 양 목장이 내륙 깊숙이까지 확대되었다4).

곡물 생산은 호주 각지에 입식이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850년대의 골드러시5)를 계기로 단번에 확대되었다. 해외에서 금광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10년 동안 약 3배로 증가하고, 식량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종농업도 크게 성장한 것이다.

1880년대부터는 내륙에도 철도망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로써 밀 생산이 내륙으로 확대되었고, 기계화 및 대규모 경영화도 진행되었다.

육우(肉牛) 사육도 정착 초기부터 행해졌다. 그러나 수송능력 제약으로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염장육(鹽藏肉6))이 약 간 수출되는 정도였다.

적인 기술혁신이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 '혁명적'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기술혁신의 상호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증기기관은 방직기에 활용됐고 면공업의 발전은 더 많은 증기기관을 요구했다. 증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철이 필요했고 용광로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데에는 증기기관이 활용됐다. 철도가 건설되면서 철광석의 수송비용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철의 생산비용도 낮아졌다. 그것은 다시 저렴한 철도를 가능하게 했으며 수송비용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유발했다. 철도의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이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혁신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기술의 역사(텍스기에서 유전자 재조합까지), 2009. 2. 25., 송성수, <https://terms.naver.com/>)

- 4) 1813년 시드니 서쪽 블루산맥 너머에 광활하고 기름진 들판이 발견되었다. 그해부터 양모의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목축업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전의 계기가 시작되었다. 1830년대에는 호바트·브리즈번·멜버른·애들레이드 등에 새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에스파냐 원산인 메리노종(種)의 양이 도입되고 개량되어, 1807년에는 양모가 처음으로 런던에 수출되었다. 1810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州)의 양 사육수가 늘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5)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되자, 시드니 서쪽에 급사면을 맞대고 솟아 있는 동부 고지의 일부를 이루는 산들이 식민지의 전면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 이 산들을 넘어가는 길이 발견되고, 산지 서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농목의 적지에 개발의 손이 뻗었다. 이것은 골드 러시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 일대에서 금이 발견되었고, 배서스트, 벤디고, 벨러렛 등에서 발견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쇠도하였다. 빅토리아 주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시작된 금광 시대는 중국부터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1850년의 40만 인구는 10년 후엔 115만, 30년 후에는 223만으로까지 증가하였다. 골드 러시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1850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 수출 양모가 17,000톤이었던 것이 1879년에는 134,000톤으로 증가하였다. 직접 금을 찾는 사람 이외에 기술자·장사꾼도 모여들어 이 대륙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 대륙 내에 성립되고 있던 6개 식민지 간의 물자 교류 및 본국과의 교역도 왕성해졌다. 통신과 운송 체계가 집중되면서 해안 도시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지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1880년대 시드니와 멜버른의 근대적인 풍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0년대에 들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해안 도시를 따라 거주하였다. 한편 영국 식민지 총독은 가혹한 세금 및 결정을 내리고, 결국 1854년 유레카 감옥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유혈 봉기가 일어난다. 이를 유레카 봉기라고 한다. 현재 멜버른에 있는 유레카 타워는 이 유레카 봉기를 기념한 것이다. 1855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빅토리아 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이니아 주가 자치 식민지가 되었으며, 1859년에는 퀸즐랜드 주가 뒤를 이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6) 염장육(salted meat, 鹽藏肉). 고기는 식품 중에 가장 저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고대부터 사용하였던 고기 저장법의 하나로 고기를 소금에 담구어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여 저장기간을 유지시킨 고기를 말한다. 13~14세기의 대항해시대를 지탱한 것은 염장돼지고기였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한편, 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에서는 '소금만을 첨가하여 저장한 식육'으로 정의 되어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이러한 문제가 냉동기술에 의해 극복되었고, 1880년대부터 냉동육 수출이 시작되었다. 이에 쇠고기 증산이 진행되어 곡물과 육용 가축 방목이라는 복합경영(複合經營)<sup>7)</sup>이 확산되었다.

낙농의 발전은 가장 늦게 나타났다. 낙농은 오랫동안 지역산업에 머물렀지만, 냉장기술이나 가공기술의 발전에 의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880년대부터 버터나 치즈가 수출산품에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 가공, 수송이라는 기술과 인프라의 진전에 따라, 19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농업이 전개할 소지가 갖추어졌다<sup>8)</sup>.

7) 복합경영(integrated management, 複合經營). 복합경영이란 개별 경영체가 2가지 이상의 부문을 가진 경영을 말한다. 영농에 있어서는 미국농사와 원예, 축산, 특용 작물 재배 등을 2가지이상의 부문을 경영하면서 각기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상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림가에서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을 조합하면 그대로는 판매할 수 없는 잎들을 가축사료로 제공하여 그 자급도를 높이고 분뇨의 토지환원에 의해 비료비를 절약하는 이점이 발생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8) 오스트레일리아섬은 대륙으로 불리지만 대륙으로서는 세계 최소이며, 그 지형은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변화가 적고 단조롭다. 둘레 약 2만km에 이르는 해안선도 굴곡이 적어 오랜 기간 안정상태를 유지해온 대륙임을 알 수 있다. 대륙의 동쪽 해상에는 브리즈번 근처에서 북상하여 뉴기니섬 부근에까지 이르는(약 2,000km) 세계 최대의 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大堡礁]가 뻗어 있다. 대륙 주변의 대륙붕은 육지에서 320~2,400km에 걸쳐 있어, 북쪽 아라푸라해(海)의 수심은 약 30m이고 남쪽 태즈메이니아섬을 격하는 베스 해협은 수심 70m이다. 육지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없이 평탄하여, 세계 전 육지의 평균 해발고도가 약 767m인 데 반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평균 해발고도는 330m에 미달, 해발고도 700m 이상의 지역은 전체의 1/12 이하이다. 지형적으로는 서부대고원(西部大高原), 중동부저지(中東部低地), 동부고지(東部高地)의 셋으로 나뉜다. ① 서부대고원: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는 평균 해발고도 330m의 암석사막지대이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州)와 노던테리토리의 절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와 퀸즐랜드 주의 일부에 해당하며 고생대(古生代) 이전의 편암·편마암·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부의 해머즐리산맥·오프탈미아산맥과 중부의 맥도널산맥·머스그레이브 산맥과의 사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과우지대로, 극도로 건조하다. 그 대부분은 풀과 관목으로 덮여 고정되어 있으며, 이동하는 사구(砂丘)는 거의 없다. 하천은 간헐성(間歇性) 하천으로 염도가 많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광물자원, 특히 방대한 철광석과 보크사이트가 발견되었다. ② 중동부저지: 대륙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펼쳐진 이 저지대의 평균 해발고도는 150m 이하이다. 이 지대는 예전에는 해저(海底)가 되었던 곳으로 백악기(白堊紀)의 어패류 화석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에어호(湖)와 같이 해변 아래 약 10m의 염도도 있다. 중동부저지의 북부는 열대권에 속하며 강수량은 풍부하나 목축 외에는 중요한 산업이 없다. 중부~남부 지역은 기후적으로는 건조하나 자분정(自噴井)이 많으며 중부의 대찬정 분지(大鑛井盆地)는 세계 최대의 자분정 분지로서 양의 사육이 성하다. 서쪽의 에어호 분지는 강수량이 연간 100mm 이하로 극히 적어 일부에서 양을 사육할 뿐,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남부의 머리강(江) 유역에서는 대규모의 양치기 외에 밀·과일·벼 등이 재배되고 있다. 이들 생산물의 집산지·반출항으로서 애들레이드시(市)가 발전되어 있다. ③ 동부고지: 요크콧 반도에서부터 대륙의 동부를 북에서 남으로 대분수산맥(大分水山脈: 그레이트디바이딩레인지)이 뻗어 있다. 그러나 이 산맥은 고지의 연속일 뿐, 높은 산은 없다. 고원 위는 넓은 평탄면을 이루어 농·목축업에 이용된다. 퀸즐랜드 주의 바틀프리트산(1,612m)을 제외하면 북부와 남부에는 해발고도 1,500m 이상의 산이 거의 없다. 남부의 오스트레일리아 알프스산맥은 7·8월의 적설기에 겨울 스포츠의 최적지가 된다. 이 산맥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봉인 코지어스코산(2,234m)이 있다. 그 남쪽에는 빅토리아 주(州)의 보공산(1,985m)이 있고, 산맥이 일단 베스 해협으로 침몰하였다가 태즈메이니아주의 오사산(1,617m)에 이어진다. 코지어스코산의 북쪽에서 발원하는 스노위·머립비지·머리 등 하천을 다목적으로 개발하는 스노위 산지계획이 1949년에 착공되어 총 5,200km<sup>2</sup>의 범위에 걸쳐 수력발전소 7개소, 대규모 댐 16개소, 터널 145km, 수로(水路) 80km 등이 1974년에 완성되었다. 대분수산맥의 동쪽은 기름진 평야로서, 너비 50~400km의 장대한 연안평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경제의 심장부가 되어 있다. 대분수산맥에서 평야지역에 걸쳐서 석탄이 개발되어 외국으로 수출된다.(출처: 네

### 3. 20세기에서 오늘에 이르는 농업의 발전

호주의 농림수산업이 GDP<sup>9)</su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00~01년도에 19.4%였다. 1916~17년도와 1917~18년도 및 1950~51년도에는 각각 제1차 세계대전<sup>10)</sup>과 한국전쟁<sup>11)</sup>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호주 농림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었다.

이버 지식인, ‘(Q) 호주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2003년 6월 6일), <https://kin.naver.com/qna/>

- 9)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GDP는 당해연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연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 4., <https://terms.naver.com/>).
- 10)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First World War, 第一次世界大戰). 1914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던 세계 전쟁.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협상국(연합국)과, 독일·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양 진영의 중심이 되어 싸운 전쟁으로서, 그 배경은 1900년경의 '제국주의' 개막의 시기부터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11) 6.25 전쟁(六二五戰爭) 또는 한국전쟁(韓國戰爭)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경 북한이 압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간 교전이 이어졌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역이용해, 극동아시아의 미소냉전 사이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 의도가 있어 대리전 양상을 띄기도 한다. 6.25 전쟁의 평화 협정(Peace treaty, 강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전쟁이지만 남북 양측의 시민들은 전쟁 진행 중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는平時(平時)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시(戰時)에 시행되는 비상 명령을 계속 발동하기에는 유례없이 긴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라, 준전시(準戰時)라는 특수한 대치 상태로 구분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종결과 함께 전개된 냉전 구도가 열전(熱戰)으로 폭발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2차 세계대전 당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남침을 시작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명칭 외에도 6.25 전쟁을 호칭하는 몇몇 어휘들이 있는데, 가령 북한에서는 조선전쟁 혹은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자신들을 '조선'이라 칭하므로 '조선전쟁'이라 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조선전쟁 혹은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의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중국에서 임진왜란을 부르는 표현은 보통 '만력조선지역'이지만, 항왜원조전쟁(抗倭援朝战争)이라고도 한다. 이는 왜적에 대항해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6.25를 의미하는 항미원조와 대상만 다르다. 중국 측이 6.25 전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조선전쟁, 조선동란(朝鮮動亂), 6.25전쟁이라고 부르며, 현재 중국도 조선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전(韓戰)이라고 부른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20세기 후반에도 농업생산의 확대는 계속되었지만, 다른 산업의 성장이 더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위는 저하되어갔다. 최근의 GDP 점유율은 2~3% 정도에 불과하다<sup>12)</sup>.

주요 산물에 대해 살펴보면, 밀은 1901~02년도에 비해 작부면적에서 약 6배, 생산량은 10배 이상 늘어났다<sup>13)</sup>. 양(羊) 사육두수는 증가 기조가 계속되어 1970년대에 1억 8천만 마리에 이르렀다. 그 후, 양모 수요 쇠퇴에 수반하여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육우 사육두수는 20세기를 통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후, 최근 20년 정도는 2,400만 마리 전후에서 머물고 있다. 냉동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 수출이 1934년 이후 가능해진 것도 확대를 조장한 한 요인이 되었다<sup>14)</sup>.

젖소 사육두수는 1930년대까지 급속도로 확대되어 300만 마리 수준이 30년간 지속되었다.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는 최대 시기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마리당 착유능력이 향상된 결과 원유 생산량은 최대 마릿수 시기를 웃돌고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호주의 농업 생산은 확대를 계속하여, 식량 대수출국이 되어 갔다<sup>16)</sup>.

12)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 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가량이 농사를 짓지만 이 나라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식량을 생산해낸다. 농지가 전 국토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부분 건조한 목초지이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은 전체 농지의 겨우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들은 현대식 영농법을 이용하여 경작지의 생산성을 고도로 높였다. 약 10%의 경작지가 관개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대의 양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또한 쇠고기, 설탕, 밀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낙농 제품, 과일, 사탕수수도 많이 생산한다. 2003년 기준 농림수산업의 GDP 점유율은 3%정도이며, 관련 노동자 수는 4% 정도이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으로 29%, 다음으로 지역·공공·개인 서비스업 20%, 제조업 12%,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14%, 교통·통신 8%, 건설업 7%, 광업 5% 정도였으나(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에 관하여(2011년 1월 17일)', <https://kin.naver.com/qna/>), 2013년 기준으로는 농업 2.5%, 광업 8.8%, 제조업 6.8%, 전기, 가스 및 수도업 2.9%, 건설업 8.5%, 도매 및 소매업 9%, 음식 및 숙박업 2.5%, 운수 및 보관업 5%, 정보통신업 3%, 금융 및 보험업 8.9%, 부동산 및 임대업 2.9%, 사업서비스업 9.9%, 공공행정 및 국방 5.7%, 교육서비스업 4.9%,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6.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7%, Ownership of dwellings 9%로 크게 변화였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13) 오스트레일리아 곡물의 최근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허 덕, 박지원,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오스트레일리아 육우산업에 대한 최근 자료는 허 덕, 김태련,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제3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오스트레일리아 낙농업에 대한 최근 자료는 허 덕, 김수연,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2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김태련, '호주의 원유(原乳) 생산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 4. 농업정책의 변천: 1970년경까지 지원확대

호주 정부는 정착 직후부터 농업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19세기 말까지는 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농업을 포함한 산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각 주를 아우르는 연방정부<sup>17)</sup>가 탄생한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수입 설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보장금)을 주어 국내 사탕수수 생산을 보호하였다. 마가린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낙농도 보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시에는 물자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양모와 잉여 버터를 수매하였다. 또, 밀에 대해서는 호주 밀 보드(Australian Wheat Board, AWB<sup>18)</sup>)가 설립되어 판매·가격을 관리하였다.

16)농업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19%), 중국(9%), 미국(8%), 한국(8%), 뉴질랜드(7%), 인도(5%), 영국(4%)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농업 특징(2010년 6월 1일’, <https://kin.naver.com/qna/>)

17)오스트레일리아는 1893년 이래 각주 총리회의(總理會議)가 개최되면서 각주를 통일하는 연방을 설립하려는 기운이 성숙함에 따라 1900년에 연방헌법이 제정되었다. 1901년 1월 1일에는 영국의 자치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이 발족되었다.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의 수도가 잠정적으로 멜버른으로 정해졌으나 191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주(首都地域: Australia Capital Territory)가 결정되었고, 그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을 1913년에 캔버라로 명명하였다. 1922년에 최초의 연방의회가 열렸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연방 정부, 6개 주와 2개 테리토리를 관할하는 주 정부, 그리고 약 700개에 달하는 지방 정부, 이렇게 3단계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단일 정부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자체 주 정부가 있는 주와 테리토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단일 국가 체제 내에서 존재한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 정부 정보(2012년 6월 10일)’, <https://kin.naver.com/qna/>).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주(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테즈메이니아)의 연합체로 구성된 국가이다. 국가의 정치형태는 연방회의와 각 주 의회를 갖고, 연방은 국내의 정치와 대외관계를 스스로 장악하는 완전한 독립국인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 연방의 일원이며 그 안에서 지위는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령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1)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2)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이다. 3)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또는 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 6개 주 및 2개 특별구역) 및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약 700개)간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① 연방 : 국방, 외교, 무역, 금융, 체신, 통신, TV, 라디오, 고용, 소득 및 법인세, 이민 및 세관, 여권, 연금, 항공 등, ② 주 : 학교, 법원, 도로, 철도, 자동차 등록, 산림, 경찰, 소방 및 앵브란스, 야생동물 보호 등, ③ 지방 : 도시계획, 도로교통, 도서관, 쓰레기수거, 하수도, 운동 시설, 지역 관광 등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형식상 영국여왕(Elizabeth II)이 국가원수(Queen of Australia)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출처: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의 연방제도에 관하여’ (2005년 3월 23일, <https://kin.naver.com/qna/>)

18)오스트레일리아의 밀은 1000만ha이상의 토지에서 200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85%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주산단지(主産地)는 동부고원지대(the eastern upland)이며, 종자는 대부분 봄

호주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전쟁기간 기간에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수입관세가 인상되어 1923년에 설탕수입이 금지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에는 부채경감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1932년에는 비료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보조와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은 호주 유제품의 잉여분과 수출 양모의 전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농산물에 대한 보상금은 유제품이 새롭게 대상이 되는 등 확대되었으며, 그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sup>19)</sup> 후에도 계속되었다. 또한, 일단은 폐지되었던 AWB가 1939년에 부활하였다. 이 때 AWB에 국내산 밀 전부에 대해 유통을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밀에 대해 AWB가 지속됨과 동시에 같은

---

밀을 재배이다. 국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세계생산의 2.6%정도로 단일국가 중 3번째의 수출대국으로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 물량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통에 있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밀 위원회(또는 호주 밀보드, AWB)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AWB의 주요기능으로는 i) 밀 재배 농민의 순수 소득을 증대, ii) 곡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iii)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 iv) 정보의 수집과 평가, 확산 등이다. AWB의 책임부분으로는 i) 유통비용을 최소화, ii) 합리적인 마케팅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iii)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확대 등이다. 이 외에 곡물취급기구인 BHA가 있다. BHA의 주요기능은 i) 분류, ii) 분리, iii) 곡물위생, iv) 품질보증, v) 안전저장, vi) 곡물수송 및 저장관리이다. 수송패턴에 대해 살펴보면, 곡물의 수집분산 시스템은 주로 육로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 철도에 의한 수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철도는 대규모 수송을 가능하게 하여 결국 밀의 국가적 대외경쟁력 제고에 큰 이바지를 해 왔다. 미시경제 개혁으로 자동차에 의한 육로 수송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면, (1) 오스트레일리아 밀의 국내 시장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곡물취급위원회(AWB)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나, 통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2) 밀의 판매협상에 대해 보면, ① 상대국의 정부나 정부조직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및 이라크에 적용되며, ② 오스트레일리아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국제 곡물 무역상을 통한 판매(수출의 약 30% 차지)-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적용, ③ 제분업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차원에서 발주된 원조 차원의 밀이 판매되는 경우, ④ 판매수익 정산-대부분의 오스트레일리아 밀 생산은 곡물취급위원회(AWB)의 통합 시스템에 의해 유통되며 수익금이 분배된다. 통합시스템은 운영의 초기에 보다 엄밀한 등급화와 분리작업이 종자의 종류별로 품질별로 실시된다. 밀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균등하게, 협력적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소비 및 수출에 대해 살펴보면, (1) 국내소비이다. 국내 소비는 ① 오스트레일리아 내 밀의 국내소비는 연간 약 3.5백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이다. ② 36만 톤 이상은 전분과 글루텐의 제조에 이용, 국내 소비 중 약 50만 톤은 종자로 보관되고 있다. (2) 수출이다. 수출은 ① 상업적인 무역에 의한 수출, 원조용으로 수출과 ② 오스트레일리아 밀은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중동지역이 전체 42%를 상회하며, 인도주변국가의 물량이 약 3,500톤으로 18%, 동남아시아 20%,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11% 정도이다. 앞으로의 오스트레일리아 밀 산업은 (1) 오스트레일리아 밀 위원회(AWB)의 사유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자들이 직접관리한다. (2) Joint Venture 투자이다. 아시아 식품연구소를 중국 내 제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겨울밀의 개발과 보급이다.(출처: BIKERS LAB Blog 소마쿰(2019년 10월 6일), [http://www.bikerslab.com/shop/blog/?mb\\_id=report7777&id=44933](http://www.bikerslab.com/shop/blog/?mb_id=report7777&id=44933), 원문출처: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9031957&sid=qjfRnf777&key=>)

19)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 주는 영연방 내의 자치령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결성하고, 각각의 식민지 주는 연방주로 자리매김하였다. 1942년 10월 9일 외교권과 국방권을 얻은 독립국이 되었으며 1986년 3월 3일 독자적인 헌법이 마련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국민들 약 40만 명 정도가 참전하였고 그중 약 6만 명이 전사했다고 알려진다. 현재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군단(ANZAC, 앤잭, Australia & New Zealand Army Corps)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 나라는 제1차 세계 대전(61,928명 전사), 제2차 세계 대전(39,400명 전사), 한국 전쟁(339명 전사), 베트남 전쟁(520명 전사)에 참전하였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구조가 일반화되어 많은 농산물로 확산되었다. 법정판매보드(이하 ‘판매보드’)라는 조직이 법률이 지정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로부터 강제 매입하는 권한을 가지고 유통을 독점하였다. 국내용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수출 가격은 내려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생산자가 얻는 평균 가격과 소득의 유지·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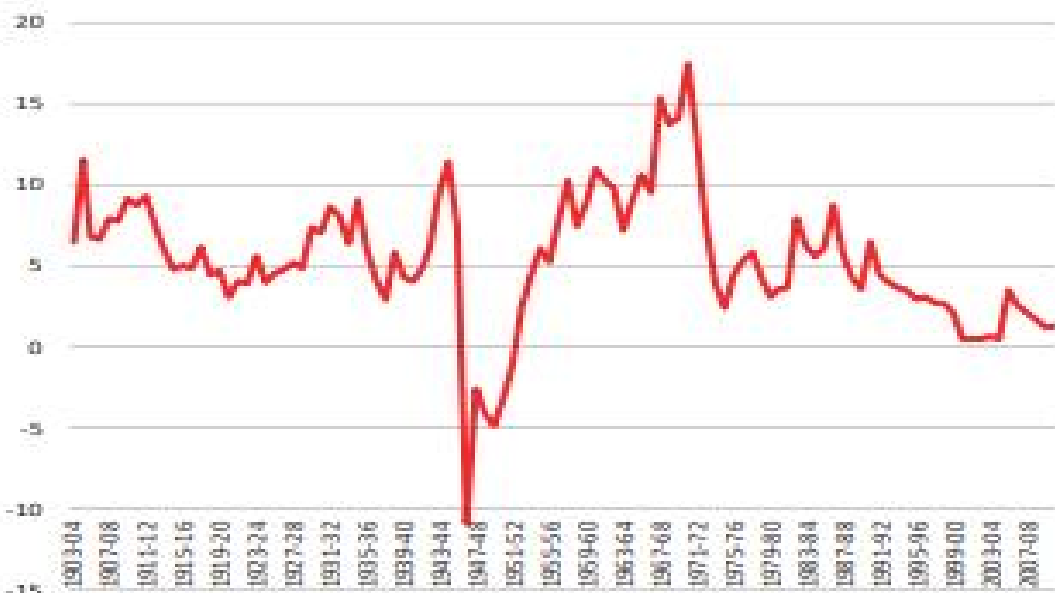
수입규제, 대체품 규제, 포상금, 비료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이러한 구조(판매보드를 통한 독점적 구조 등)도 전쟁 기간 기에 시작되었지만, 전후에는 판매 보드에 의한 유통 관리가 지원책의 주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5. 1970년대 이후 지원 삭감 및 규제개혁

농업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명목 지원률(호주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국제 가격의 몇 %에 상당하는지에 관한 지표)은, 특수한 상황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와 그 직후는 별도로 하면, 20세기 전반은 5~10%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1950년대부터 급상승하여 1970년경 15%를 넘어 최대에 해당한다(그림 1).

<그림 1> 농업에 대한 명목 지원률 추이

단위: %



자료: Lloyd, Peter and MaClaren, Donald (2015) “Relative assistance t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ince Federation”. 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19.5에서 재인용.

1960년대에는 이러한 국내 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을 조장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을 방해한다고 하는 인식이 퍼졌다. 그 결과, 규제와 보조를 폐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개혁이 시작되었고, 농업 지원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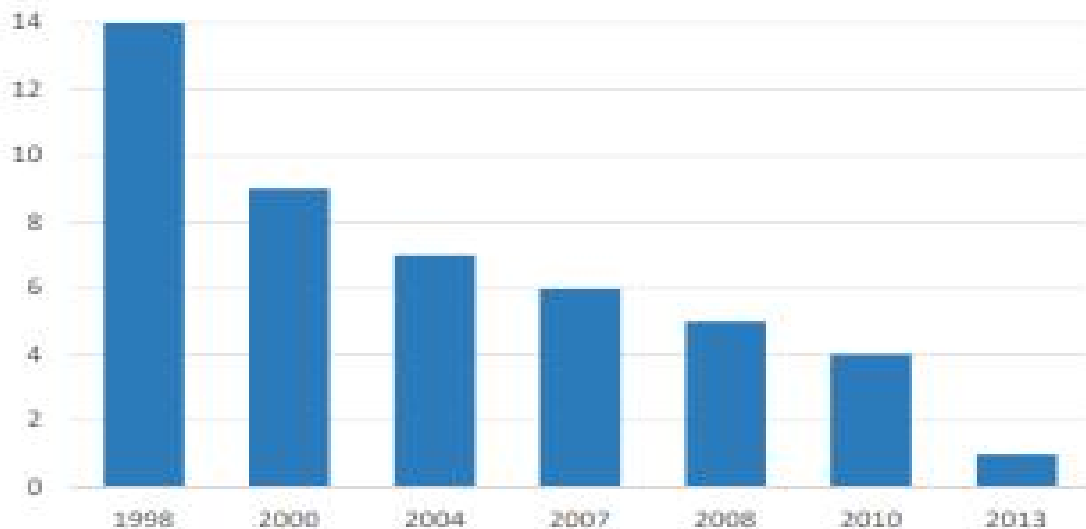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관세율이 인하되어 포상금이 차례차례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는 비료 보조금이 폐지되어 설탕 수입이 해금되었다.

유통을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면화, 감귤, 건포도, 사과, 배, 계란 등에서 판매 보드의 기능·권한 축소가 진행되었다.

밀에 있어서 AWB는 1980년대에 국내 시장이 자유화되어, 2000년 이후 수출 독점에 대해서도, 차례차례 권한을 잃어갔다. 2012년에는 밀 유통이 완전하게 자유화 되었다. 각 주정부 관리 하에 놓여 있던 보리 등 곡물 판매 보드도 독점권을 잃었다.

<그림 2>는 호주 정부가 WTO에 통보한 국가 무역기업 수의 추이이다. 판매 보드의 수출 독점 폐지에 대응하여 감소하고 있다. 현재에도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것은 쌀 판매 보드뿐이다.

<그림 2> 국가무역 기업 수의 추이



자료: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WTO 통보 자료임. 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19.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원삭감과 규제완화가 진행된 결과, 오늘날 호주 농업은 가격과 유통 규제는 적고 명목지원률은 수 % 정도에 해당하는 지극히 낮은 보호수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허 덕, 김수연, ‘호주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1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수연, ‘호주 낙농업 현황과 업계의 M&A 진행 상황’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 제2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호주의 원유(原乳)생산을 둘러싼 현황과 향후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호주 육우산업의 환경 정책과 육우농가의 대응’ (특집: 호주/뉴질랜드 축산(제3편),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3호(202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2호(202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4호(2020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玉井 哲也, ‘オーストラリアの農業・農政—200年の展開—’, 「Primaff Review」 No.89, 農林水産政策研究所(Primaff), 2019.5 ([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531\\_pr89\\_04.pdf](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190531_pr89_04.pdf))
- 玉井 哲也, 「第3章 オーストラリア—農業支援政策と縮小の歴史的経緯—」プロジェクト研究,[主要国農業戦略横断・総合]研究資料第7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8
- Lloyd, Peter and MaClaren, Donald, “Relative assistance to Australian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ince Federation”, 2015
- BIKERS LAB Blog 소마쿤, [http://www.bikerslab.com/shop/blog/?mb\\_id=report7777&id=44933](http://www.bikerslab.com/shop/blog/?mb_id=report7777&id=44933), 원문출처: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xid=a&kid=b&pk=19031957&sid=qjfRnf777&key=>
- 나무위키, <https://namu.wiki/w/>
- 네이버 지식백과 기술의 역사(펜석기에서 유전자 재조합까지), 2009. 2. 25., 송성수,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임업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한국식품과학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 4.,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에 관하여(2011년 1월 17일)’ , <https://kin.naver.com/qna/>

네이버 지식인, ‘(Q) 호주 정부 정보(2012년 6월 10일)’ , <https://kin.naver.com/qna/>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의 연방제도에 관하여(2005년 3월 23일)’ , <https://kin.naver.com/qna/>

네이버 지식인, ‘(Q) 호주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2003년 6월 6일), <https://kin.naver.com/qna/>

네이버 지식인, ‘(Q)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농업 특징(2010년 6월 1일)’ ,  
<https://kin.naver.com/qna/>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